

# 전문서 번역출판에 큰 성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번역총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금지원을 받아 발간되는 '韓國學術振興財團翻譯叢書'가 11월 현재 45권째를 기록, 그동안의 성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학술문헌을 번역, 출판, 배포함으로써 학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학문의 국제교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번역총서 기획은 원래 문교부 및 학술원의 소관사업으로 1954년에 이미 시작됐던 것. 그후 1983년 학술진흥재단으로 소관처가 옮겨지기까지 모두 201종의 해외학술문헌이 우리말로 번역, 출간됐다.

그러다가 학술진흥재단이 떠맡은 이후에는 1984년에 19종, 85년에 7종, 86년에 9종, 87년에 11종이 번역되어 나왔다. 88년에는 23종을 출간할 계획으로 현재 번역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수량면으로 볼 때는 사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이 번역총서가 정부의 장기적 기획 아래 민간 학술활동 지원책의 일환으로 해를 거르지 않고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는 점은 크게 고무적인 일. 더구나 그것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 번역총서의 대부분이 출간될 수 없었으리라는 것도 중요한 의의라고 할 만하다. 워낙 전문적인 학술서들이라서 엄두를 못내는 책, 그러나 우리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책을 선보인다는 것이 번역총서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학술진흥재단의 丁海運상임이사는 말한다.

"우리 학문의 수준 제고나 교육에 반드시 요긴한 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팔리지 않을 게 뻔하다면, 한두권도 아닌데 어느 출판사가 그런 출혈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출판이 전제되지 않은 책을 누가 선뜻 번역하려 들겠습니까? 말하자면, 시장성의 측면에서 일반 출판사가 당하게 될 불이익을 상쇄해 주고,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번역자의 의욕을 북돋아 주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번역자에게 고료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출판사에는 출간된 책의 일정량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번역총서 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연과학 관련서가 주종

그래서인지 번역총서로 간행된 것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자연과학 관련서. 1983년 이후 번역총서 간행에 참여한 민음사, 을유문화사, 대광문화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네 출판사 가운데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간행도서 대부분이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서들이다.

올 10월말 한꺼번에 같이 나온 「탄소섬유의 응용기술」(일본탄소섬유학회/박병기),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로젠버그/김금룡), 「펄프·제지공학」(스무크/조병목) 등을 비롯, 그동안의 대한교과서판 번역총서의 20여종 거개가 기초 및 응용과학 전문서들이다. 또한, 85년과 86년 두해에 걸쳐 12종을 펴낸 대광문화사판의 번역총서도 마찬가지다. 85년 문공부 추천도서이기도 한 「절삭공작기계의 동특성」(티펠외/이장무외)을 비롯, 「전파천문학」(크라우스/조경철), 「농업에너지공학」(플룩/홍지형), 「雜草생태학」(홀트/구자옥) 등이 대표적이다. 85년 민음사판의 「현대기초물리학」(웨이드너외/강익주), 「기초구조물의 설계와 해석」(보울즈/강재순)도 역시 이 방면의 역서들이다.

한편, 을유문화사가 간행한 5종은 모두 인문·사회과학서. 85년에 간행된 「통과의례」(반겐넵/전경수) 및 「중국의 과학과 문명」(니담/이석호외)과 86년의 「여성학의 이론」(볼스외/정금자), 그리고 87년의 「인류의 선사시대」(페이건/최몽룡), 「인지심리학」(앤더슨/이영애) 등이 있다. 이밖에 85년 민음사에서 간행한 「山海經」(袁珂/정재서), 「알타이어형태론 개설」(람스테드/김동소), 「아도르노 문학이론」(아도르노/김주연), 「동유럽공산정치론」(스타아/김영래외) 및 대광문화사의 「중국토지제도사」(趙岡외/윤정분), 「이슬람철학사」(코빈/김정위) 등이 있다.

이처럼 자연과학도서가 번역총서의 대종을 이루는 데 대해 학술진흥재단의 한 실무자는, "텍스트의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지원의 성격상 책으로 출간됐을 경우 구매력의 취약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말하자면, 아무리 전문적일지라도 인문사회과학서는 자연과학서에 비해 그 전문성의 차원을 달리하며, 따라서 일반교양서로 읽힐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가령 「아도르노 문학이론」을 봅시다. 이 책은 아도르노나 독일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문학일반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독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책들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극도로 세분화된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고는 불 필요도, 관심도 없는



책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번역총서가 자연과학 위주로 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인문사회과학 분야로도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우리 여건상 그 우선순위 자체를 뒤바꿀 필요는 없겠으나, 예산의 확충으로 기획의 규모를 늘려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균형을 이루리라는 전망이다.

예컨대, 1억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올해의 경우, 23종의 번역 계획 중 「韓愈에 관한 詩話」, 「몽고사회제도사」, 「일본정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어도서의 외국어번역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차로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3종을 번역할 예정이기도 하다.

## 번역료 적지만 학자들 참여 높아

한 나라의 번역문화는 그 나라의 해외문화 수용의 총체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일본의 유명한 「岩波文庫」의 예에서 보듯, 때로는 한 나라의 知的, 문화적 수준을 격상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질량으로 보아 번역문화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아직은 일반교양물의 번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학술진흥재단번역총서」의 일환으로 전문학술서들이 꾸준히 번역, 출판되는 일의 의의는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는 남에게 줄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는 솔직한 自省 아래, 이 번역총서들이 전하는 舶來의 정보들을 우리것으로 소화해내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적은 번역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 재단과 학계, 그리고 출판사의 상호연계

### 아래 전문학술서를 꾸준히 펴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번역총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면서도

시장성의 결여 등으로

일반출판사 단독으로는 펴내기

어려웠던 자연과학서들을 주로

번역·출간하고 있다.

희망하는 학자들이 많아 「한국학술진흥재단번역총서」의 장래는 밝은 편이다. 수요에 비해 지원금의 규모가 적어 안타깝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현재 대개 1,000부 발행에 400부 구입으로 이루어지는 출판사에서의 지원도 늘려나갔으면 하는 것이 재단측의 바람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번역총서」는 매년 초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240개 대학에 공문을 발송,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전임강사급 이상의 학자들로부터 번역기획서를 5월까지 공모한다. 공모된 번역기획서를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 텍스트를 선정, 해당 학자와 계약을 맺고 6~7월중에는 번역을 의뢰한다. 번역기간은 국역의 경우는 6개월, 외국어로의 번역은 1년 이내로 하며, 번역료는 외국어 역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해서 대개 다음해 가을경까지는 책으로 출간되는데, 앞으로 자연과학서는 대한교과서, 인문과학서는 을유문화사로 출간을 2원화한다는 것이 학술진흥재단의 방침이다.

— 강철주 기자